


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5. 18.(월) 배포 2026. 5. 18.(월) 13:00

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봄 한정 '켈리스골드 가로수길' 눈길

- 단풍식물원 트램길 따라 약 200m 황금빛 경관 연출 -
- 라일락 특별전시와 함께 5월 대표 관람코스로 운영 -



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네군도단풍 '켈리스골드(*Acer negundo* 'Kelly's Gold')' 가로수길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.

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에 따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단풍식물원 트램 운행로 일원 약 200m 구간에는 최근 네군도단풍 '켈리스골드(*Acer negundo* 'Kelly's Gold')'가 선명한 황금빛 잎을 드러내며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.

네군도단풍 '켈리스골드(*Acer negundo* 'Kelly's Gold')'는 본철 새잎이 밝은 황금색으로 올라오는 것이 특징인 수종으로, 경관 구성에 널리 활용된다. 특히, 햇빛을 받을수록 잎 색이 더욱 선명해져 5월에서 6월 사이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.

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현재 잔디언덕 일원에서 운영중인 라일락 특별전시(5월 1일~31일)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봄철 대표 관람 콘텐츠로 트램 이용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이 높다.

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규명 원장은 "네군도단풍 '켈리스골드' 가로수길의 황금빛 풍경은 짧은 기간 볼 수 있는 계절 경관"이라며, "방문객들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봄의 색과 향기를 경험하시길 바란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서비스본부 전시원실	책임자	실 장	장창석 (054-679-2711)
		담당자	주 임	이재영 (054-679-0523)



<사진설명>

국립백두대간수목원 단풍식물원 트램 운행로 일원 약 200m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네군도단풍 '켈리스골드(Acer negundo 'Kelly's Gold')

